



맨시티 아구에로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 좌절되자 고개를 떨구고 있다.

### ‘EPL’의 굴욕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한팀도 진출 못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3팀 올라

유럽 클럽축구의 ‘별들의 전쟁’인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무대에 유럽 4대 빅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를 통틀어 최고의 중계권료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이 전멸했다.

19일(한국시각) 막을 내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결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포르투(포르투갈), 유벤투스(이탈리아), 파리 생제르맹, AS모나코(이상 프랑스) 등이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공교롭게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해 16강에 오른 첼시와 아스널은 나란히 프랑스 리그앙 소속의 파리 생제르맹과 AS모나코에 달미를 잡으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16강 1차전 경기에서 이름이 높지만 끝내 8강 팀에는 단 한 팀도 진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맛봤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8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지난 2012-2013 시즌 이후 두 시즌만이다. 당시에도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6강에 진출했지만 각각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달 무려 51억3600만 파운드(약 8조55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의 중계권료 계약에 성공했다. 프리미어리그의 인기가 다른 빅리그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전통의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부진 때문에 출전권조차 쟁취하지 못한 가운데 첼시와 아스널이 명예회복에 나섰다지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첼시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16강 1차전 원정에서 서포터들의 인종차별 행위로 비난을 받았다. 결국 첼시는 파리 생제르맹과 1, 2차전 합계 3-3을 이뤘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밀려 탈락했다.

또 아스널은 한 수 아래로 평가된 AS모나코를 상대로 1차전 홈경기에서 1-3으로 대패한 뒤 2차전 원정에서 2-0으로 이기며 1, 2차전 합계 3-3 동점을 만들었지만 역시 원정 다득점의 희생양이 됐다.

연합뉴스



## 광주 FC, 부산 뚫고 하이킥

K리그 클래식 3R 내일 부산 원정

김호남·임선영 불꽃 화력...2연승 도전

거침없는 광주 FC가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21일 오후 2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5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부산 이파크와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3년 만에 돌아온 클래식 무대에서 패조의 질주를 하고 있다. 인천과의 개막전에서 1-1 무승부를 만든 광주는 2라운드 대전전 승리로 1승1무(승점 4·득실차 2)를 기록, 부산을 골득실차로 누르고 울산(2승·승점 6·득실차 4), 전북(2승·승점 6·득실차 3)에 이어 클래식 리그 3위에 올라섰다.

우려와 달리 ‘높은 볼정유율’을 강조했던 광주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순조롭게 클래식 무대에 적응하고 있다.

광주는 부산전에서 기세를 이어 클래식 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화력을 책임지고 있는 김호남과 임선영, 이종만의 움직임이 이번 대결의 핵심 포인트다.

광주는 주장 임선영을 중심으로 짧게 만들어 가는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며 만만치 않은 힘을 과시하고 있다. 조용태와 김호남은 측면 수비수들과 함께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펼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철저부심 클래식 복귀를 기다렸던 이종

민은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1도움)를 기록하면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수비수 이찬동의 공백이 아쉬기는 하다.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광주의 중원을 책임져온 임찬동이 올림픽 대표팀 소집으로 이번 부산 원정에 나설 수 없다. 이찬동의 공백 메우기가 이번 부산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는 부산은 잔물 수비를 과시하면서 아직 상대에게 골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광주에게 이번 경기는 공격력을 시험받는 무대이기도 하다.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맞붙은 것은 2012년 8월4일(0-2패)이다. 역대전적에서는 광주가 1승2무2패를 기록하며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전적에서는 뒤져있지만 기분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다.

2012년 3월24일 부산 원정경기에서 임선영이 득점을 기록하는 등 2-1의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왔다. 광주는 그 경기에서 부산전 첫 승리를 장식하면서 부산전 3경기 연속 무승(2무1패)의 부진을 끊어냈다.

광주가 3년 만에 격돌하는 부산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반건설, 광주 FC에 후원금 5억원

호반건설이 광주 FC에 5억원을 후원했다.

광주 FC는 19일 광주시청 3층 접견실에서 구단주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정원주 광주 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억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K리그 클래식 승격으로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고도 스폰서 위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에 힘을 실어주고 올 시즌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시즌 지역 중견 기업의 첫 후원이기도 하다.

광주 FC는 재정난을 겪으며 시즌을 앞두고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 구단주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첫 후원이 이뤄지면서 구단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윤장현 구단주는 “이번 1부 리그 승격을 통해 성장 가능한 시민구단의 저력을 보여주며 많은 시민구단에 귀감이 되었다. 호반건설의 적극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드리고, 구단주로



광주 FC와 호반건설이 19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후원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정원주 광주 FC 대표이사, 구단주인 윤장현 광주시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광주 FC 제공>

서 자긍심을 느낀다.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광주 FC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했듯이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유니스타’ 전채은 U대회 기대감 UP

<조선대>

전국대학태권도선수권 2연패

‘유니스타(UniStar)’ 전채은(여·조선대 2)이 전국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조성범(조선대 3)과 이수진(여·조선대 4)은 어렵게 은메달에 그쳤다.

‘유니스타’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빛낼 대표 선수라는 의미이며, 대회 출전이 가능한 광주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다.

전채은은 지난 11~18일까지 영광군 영광스포티움 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여자1조(자격 제한 없음) -62kg급 결승에서 문지수(웅인대)와 겨뤄 씨든데스(연장·1점을 먼저 따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까지 가는 격투를 벌였으나 점수를 따지 못해 전자호구 게이저(타격 강도) 표출차에 따라 가까스로 승

리,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채은은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유니스타 조성범(조선대 3)은 남자1조 -68kg급 결승에서 이화준(계명대)에게 8-8 점전을 벌였지만, 씨든데스에서 점수를 빼기면서 어렵게 은메달에 그쳤다. -58kg급의 김영석(조선대 2)도 최은영(웅인대)과의 결승에서 어렵게 패해 준우승했다.

이수진(여·조선대 4)은 품새 복식에서 김지남과 조를 이뤄 은빛 품새를 선보였다.

유니스타는 아니지만 광주·전남지역 선수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박소윤(조당대)은 여자2조(최고 2년내 전국대회 입상경력 없음) +73kg급 결승에서 김현정(제주대)에게 2-15로 패해 준우승했다.

노광훈(조선대)은 남자1조 -74kg급에서, 김광석(조선대)은 -63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유니스타’ 전채은(여·조선대 2)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제공>

보람(조선대)은 여자1조 -49kg급에서, 윤예리(호남대)·안지혜(호남대)는 여자2조 -49kg급과 -53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2조 -80kg급에서는 세한대의 신희원·지태혁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